구룡 해안마을 경관형성 기본계획¹⁾

김연금* · 최정민**

*조경작업소 울 ·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Preliminary Landscape Improvement Plan for Gu-ryong Village

Kim, Yun-Geum* · Choi, Jung-Min**

*Wul Landscape Architecture Offic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Comprehensive Landscape Improvement Plan for Gu-ryoung Seaside Village that was one of most exhibited projects for developing sea villages.” The formulations of the plan were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were executed by the Goheung Country. Rather than proposing renovations for the landscape, this study maintains the existing order and attempts to examine the plan by scrutinizing the vernacular design language of the landscape. In the study, community members had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opinions and ideas about the community through workshops composed of community participation programs, and participat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rough consultation meeting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as relevant to the activities of the committee on landscape improvement.

The Comprehensive Landscape Improvement Plan has three objectives: (1) resorting and modifying the natural landscape, (2) restructuring the roadways, and (3) modifying key spaces. In the end, the role of Gu-ryong Mountain as a background of the landscape was focused on tree planting drives that were undertaken, and accessibility to the sea front was improved. Second, in restructuring the roadways, rough roads were restored and unconnected roads were connected to ensure a network of roads along the sea front, inner roads in the village, roads at the Fringes Mountains, and stone roads on the mud flat. In addition, roads were named according to the character of the landscape and signs were installed. Finally, the existing key spaces, in which community members came together, were restored and new key spaces were created for the outdoor activities of the inhabitants and the diverse experience of visitors. A guideline was also created to regulate private areas such as roofs, walls, fences of residential buildings, and private container boxes and fishing gear along the sea front.

The strength of this study is that it is seeking to determine the greatest potential of the landscape and set the plan by examining the lives of community members. Some problems were found during the development of this study. Further, there were problems in the community’s understanding as elaborated below. First is the gap between community members’ awareness and practice. Even though they were aware of the problems with the village landscape, they hesitated to implement improvements. Second, community members have misunderstandings about the landscape the improvement pla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sidents have understood this plan as a development project; for example, new building construction

Corresponding author: Jung-Min Choi,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540-742, Korea, Tel.: +82-61-750-3874, E-mail: jmchoi117@empal.com

or the extension of roads. Third, residents are not aware that continuous attention and improvements are required for the upkeep of the landscape in the sea village. The plan to improve the landscape should promote a balance between making the area as a tourist attraction and maintaining the lives and cultural activities, because the sea village system incorporates settlements, economy, and culture.

Key Words: Community Participation Programs, Vernacular Design Language, Committee on Landscape Improvement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0년도 해안마을 경관형성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고흥군이 시행한 ‘구룡 해안마을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다룬다. 해안마을 경관은 정주, 경제, 문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이므로 해안마을 경관형성 기본계획은 관광자원화와 정주환경조성, 문화 활동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주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관의 잠재성과 생활문화방식을 존중하면서 경관의 개선 및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했다. 연구 진행에 있어서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경관 인식과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고 경관 추진 위원회라는 소통 창구를 통해 경관형성 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진행했다.

경관형성 계획은 먼저 시간에 따라 훼손된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정비하였다. 구룡산은 배후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대지를 복원하고 산마루 지형을 활용하여 전망공간을 조성했다. 해안과 관련해서는 돌을 사용한 계단식 스탠드와 노두길 조성으로 접근성을 높였다. 마을 길 체계는 해안도로, 마을 안길, 산자락길, 노두길 등을 대상으로 사라진 길은 복원하고, 끊긴 부분은 잇고 연결하면서 경관 주제에 맞도록 재구성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외부활동 편의성 증진과 방문객이 체계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거점 공간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조성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적 영역에서의 경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의 지붕·벽체·담장과 가로에 놓이는 컨테이너 박스와 어구를 대상으로 했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에 밀착한 해안마을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해안마을 경관 형성 사업의 한계점과 과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주민들의 인식과 실천 사이의 간극이다. 주민들은 마을경관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나타냈다. 둘째는 마을 경관형성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이다. 지방정부와 주민들은 마을 경관형성 사업을 신규 건축이나 도로 확장 같은 개발 사업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는 경관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계획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일회적인 사업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제어: 커뮤니티 참여 프로그램, 토속적 디자인 언어, 경관 추진 위원회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해안마을과 관련하여 대규모 리조트 개발, 복합개발단지 위주의 개발 사업으로 경관 훼손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역 경관자원 보존과 해안마을 자체의 관광 자원화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의뢰하여 해안마을 경관 계획과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해안마을 관광자원화를 위한 경관형성 방안’을 작성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해안마을의 경관자원 특성과 잠재력을 발굴하여 장소특성을 극대화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와 지방정부는 ‘해안마을 경관형성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와 고흥군이 주관한 ‘구룡 해안마을 경관형성 기본계획²⁾’의 일환이다.

해안선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해안마을은 해안경관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해안마을의 물리적 환경은 수변 공간의 어항시설 위주로 기능적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고 경관 가치는 소홀히 다루어져왔었다(김진환과 윤상현, 2011; 강효은 등, 2011). 반대로 경관적 가치를 활용하는 관련 사업들은 해안마을 고유의 경관에 집중하기 보다는 일시적 관광을 위한 펜션, 호텔, 상업시설 조성이나 단편적 시설정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도 부족해 ‘급격한 산업

화와 현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낡고 오래된 곳으로 인식'(강효은 등, 2011)되고 있다. 이에 해안마을의 고유성과 정주성을 고려한 경관계획이 필요하다. 해안마을은 도시와는 달리 정주, 경제활동, 문화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강효은 등, 2011)인 만큼, 경관계획은 이러한 요소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수려한 해안 경관과 고유한 정취를 지닌 구룡 해안마을의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관의 잠재성과 생활문화방식을 존중하면서 경관의 개선 및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주민들의 경관 인식과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활용한 워크숍을 열었다. 또한 경관 추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진행했다.

2. 연구 방법

마을경관 계획은 사적 영역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계획이나 실행과정에서 주민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공동의 이해와 공동의 의사결정을 위한 주민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은 부가적으로 사업 시행 후 관리 및 유지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높이는 효과도 있다. 더욱이 경관은 시간의 누적 속에서 주민들의 직관과 체험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장소성 읽기와 계획에도 도움이 된다. Schneekloth and Shibley(2000)에 따르면 장소만들기는 단지 사람과 장소의 관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소 만들기는 다양한 지식을 갖는 사람들 간의 상호이해

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협동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공간에 대해 갖는 주관적 지식도 중요하다. Healey(2010)는 주민들의 생활문화방식에 근거한 계획을 위해서는 그들이 일상에서 얻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계획에 대한 의견을 잘 듣고 이를 계획적 논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관 추진 위원회라는 소통 창구를 통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사결정을 진행했다. 구룡마을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 단계에서 이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계획의 시작단계부터 공론을 통한 계획이 가능했다. 위원회는 개발위원장, 구룡마을과 덕양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그리고 어촌계의 어촌계장 등 15명으로 구성되었다. 경관 추진 위원회는 다음에서 설명할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계획 및 설계를 검토하는 주민회의 등을 주재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연구자와 행정에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다.

주민을 계획에 참여시키는 방법은 문제 인식 답사(awareness walks)·면담(interview)·사진 조사(photo survey)·카드 게임(card game)·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핸드온(hand on) 등 다양하다(Wates, 2006).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방식으로 카드 게임과 마인드맵(mind map) 기법을 활용했다. 전체 프로그램은 2011년 7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두 단계로 기획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민 스스로 우수 경관자원과 문제경관을 찾는 카드게임을 기획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의 미래상을 알아보기 위한 카드게임 방식을 도입했고 마인드맵(mind map)을 활용해 미래상을 이루기 위한 주민 역할을 검토했다. 카드게임은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Chambers, 2002) 주어진

표 1. 경관 및 경관계획에 대한 주민인식 파악을 위한 워크숍

구분	조사 내용	방식	시행 일시 및 참여자	비고
첫째 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경관 자원과 문제점 찾기	1단계 4~5명씩을 한 조로 구성	2011년 7월 11일 pm 18:00 덕양마을 마을회관 전문가 그룹과 주민	마을의 지도를 제시하여 응답의 구체성을 높임
		↓		
		2단계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카드에 쓰기 질문1: “마을 내 우리만 아는 자랑할 만한 비밀을 5개씩 적어 보세요” 질문2: “마을 내 숨기고 싶은 요소 5개씩 적어 보세요”		
둘째 날	주민이 생각하는 해안 마을의 미래상 알아보기와 주민들의 역할 찾아보기	↓	2011년 7월 12일 pm 18:00 구룡마을 이장님택 전문가 그룹과 주민	
		3단계 각자 발표하면서 토론		
		↓		
		1단계 개인별 미래상 3개씩 쓰기 “○○○○가 좋은 우리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		
		2단계 조별 토론을 통해 미래상 종합과 압축		
		↓		
		3단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 발표 “○○○○한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제에 대해 참여자 모두가 동시에 카드에 의견을 쓰도록 하는 것이며 카드 한 장에 하나의 의견만을 쓸 수 있다. 동시에 의견을 쓰도록 하는 이유는 다른 참여자의 발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 장에 하나의 의견을 쓰도록 하는 것은 동등한 발언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마인드맵은 하나의 주제를 두고 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연상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방식이다. 이외 관찰조사와 주민면담, 문헌을 통해 대상지의 지형학적 특성과 주변 맥락, 경관 구조, 가로 경관, 역사 경관 및 건축물 경관, 근경(0.5km)·중경(0.5~1.0km)·원경(1.0~2.0km)에 따른 조망 특성을 조사하였다.

II. 구룡 해안마을 경관 특성과 주민참여

1. 대상지의 특성과 주변 맥락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내 구룡마을과 덕양마을이다. 덕흥리는 행정적으로 3개의 자연 마을인 구룡마을·덕양마을·덕흥마을로 구분되고 3개 마을 공동으로 '덕흥리 어촌계'를 구성해 마을 전면에 형성된 갯벌에서의 바지락 채취를 공동관리하고 있다. 2010년 통계자료(<http://www.goheung.go.kr>)에 따르면 덕양마을은 총 96세대, 244명이 거주하며 이중 남자는 117명, 여자는 127명이고 구룡 해안마을은 총 59세대, 111명이 거주하며 이중 남자는 52명, 여자는 59명이다.

덕흥리가 속해있는 내나로도(內羅老島)는 과거에는 국도(國島)와 나라섬으로 불렸으며, 조선시대인 영조(英祖) 때부터 나로도(羅老島)로 표기되었다. 나로도는 고흥반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24km 떨어진 섬이었으나, 1994년 연육교인 나로대교(380m)가 완공되어 고흥반도와 연결되었다. 내나로도는 해안 곳곳에 갑과만의 드나들이 심하며 북동쪽과 남쪽이 크게 만입되어 있고, 동쪽 돌출부는 암석 해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룡마을이 속한 덕흥리 일대에는 약간의 평야가 분포하고 있다.

주변의 관광자원을 살펴보면, 내나로도의 '국립 고흥 청소년 우주센터'는 외나로도의 우주센터(2009년 완공)와 연계해 이 일대를 '우주'라는 주제로 특화하려는 목적으로 2010년 조성되었다. 또 내나로도 내 구룡마을 후면의 덕흥마을에는 소나무 숲과 모래 해변으로 구성된 '덕흥 해수욕장'이 있다. 이외 고흥군은 아름다운 경관을 '고흥 십경(高興 十景)'으로 선정하여 이를 관광자원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구룡 해안마을 주변에는 4경인 '나로도 해상경관'과 8경인 '마복산 기암절벽'이 인접하여 있다.

2. 구룡 해안마을 경관 특성

a: 대동여지도(1861)에서의 내나로도

b: 내나로도와 주변맥락

그림 1. 고지도에서의 대상지와 주변 맥락

1) 경관 구조

구룡 해안마을은 구룡산(九龍山: 201m)을 배경으로 해안선을 따라 촌락이 길게 열 지어 형성되어 있어 경관 구조에 있어 해변 경계형³⁾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룡산은 경작지 확대와 건축물의 조성과 철거로 지형과 숲이 손상되어 있고, 구룡산 자락의 다락논은 해안마을의 특징적 경관이나 휴경지로 방치된 곳이 많다. 마을 전면에는 조수 간만의 차로 바다와 갯벌이 번갈아 나타나 '변화하는 경관자원'이 된다. 갯벌은 덕흥리 어촌계가 관리하는 공유공간으로 바지락 및 기타 해산물을 채취하는 마을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하다. 갯벌에 위치하는 1,120m² 규모의 '탄섬'에는 곰솔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해홍나물과 해당화 등이 자라고 있다. 탄섬으로의 접근은 갯벌에 놓인 징검돌로만 가능하다. 또한 구룡마을 전면에 위치하는 시호도는 총 면적이 3.76km², 해안선 길이 3.9km인 무인도로 곰솔이 섬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 '시호도'라는 명칭은 '죽은 호랑이의 섬'이라는 의미인데 죽은 호랑이이기 때문에 개모양인 구룡마을이 안전하다고 한다. 화강암 바위질로 구성되어 있어

그림 2. 구룡 해안마을 전경

접안이 용이하지 않아 어업활동에 사용되는 소형 배로만 접근이 가능하나, 근래 시호도를 대상으로 고흥군 내 신석기 시대 지석묘를 모티브로 하는 '원시 체험의 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구룡마을과의 연계가 필요해졌다.

2) 가로 경관

두 마을을 외부와 연결하는 중심도로는 해안도로인 성두구룡길로 연육교인 나로대교(380m)가 완공 된 후 이와 연계되어 2차선 아스팔트 포장으로 조성되었다. 이전의 중심도로는 구룡산에 형성된 산자락길이었으나 성두구룡길 조성으로 지금은 본래적 역할을 잃고 농경지와 마을을 연결하는 길로 사용되고 있다. 산자락길은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정형의 선형을 지니며 주변 경작지 증가와 시설물 증가, 이동로로서의 역할 감소로 일부는 끊겼다. 또 다른 종류의 길인 마을내부의 안길은 해안도로와 직교하는 나뭇가지 형태로 해안과 구룡산, 주거지와 주거지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해안마을은 어장과 어항인 어업공간을 공동 이용하는 등 농촌마을에 비해 공동체성이 강한데 이는 경관에도 적용된다. 대부분의 어업활동이 수변지역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그 생산물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보관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해변에 어구 등을 보관하는 공동공간이 필요하게 된다(정치영, 2009). 구룡마을의 경우도 갯벌은 공유수면으로 어촌계가 공동 관리하며 해안도로는 통과 동선이지만 공동 작업장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해안도로에는 각 개인이 사용하는 그물·어망 부이·통발 같은 다양한 어구가 산재하고 있고, 어구를 보관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해안도로에 면한 집 앞이나 공터에 놓여있다. 이러한 컨테이너 박스는 불규칙적인 배치와 통일되지 않은 크기와 색채, 철제라는 재료 특성으로 부정적 경관 요소로 작용

한다. 컨테이너 박스는 놓여있는 형태에 따라 단독 형태, 여러 개가 군집을 이룬 형태, 담장과 결합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독형태와 군집 형태는 주거지와 떨어진 구룡산 자락에 위치해 산지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또 다른 해안도로의 경관 요소로는 해안가 측에 설치된 안전 가드레일이 있는데 콘크리트와 철제 등 통일되지 않은 재질과 형태로 연속적 경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3) 건축물 경관과 역사 경관

건축물은 대부분 주거를 위한 1층 주택이 전체 132동 중 129동을 차지하며, 2층 건물은 입구부의 신축건물과 교회, 2동의 건물이다. 덕양마을 입구에 숙박시설로 사용되었던 3층 건물이 가장 높은 건물이 된다. 주거지 건축물의 구성은 보통 한 동의 주택과 부속 건물로 되어 있고 부속건물은 축사나, 어업활동 시 사용하는 어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지붕의 형태에 있어서는 단순한 경사형 지붕과 평형슬래브

표 2. 건축물 현황

항목	구분	동수	비율(%)
건축물 용도와 층수	건물용도	주거	93
		기타부속건물	41
		축사	2
		합계	136
	건물층수	1층	129
		2층	3
		3층	1
		합계	132
지붕 형태와 재료	지붕형태	경사형	47
		평형슬래브	32
		팔작지붕형	31
		우진각형	17
		눈썹형	2
		슬래브, 경사형 혼합	2
		합계	131
	지붕재료	한석	48
		슬레이트	39
		슬래브	34
		형글	6
		기와	4
		합계	131
	지붕색채	파란색 계열	46
		검정	43
		주황	24
		적색	18
		흰색	2
		합계	133

그림 3. 마을 길 체계와 경관

범례: — 해안도로 — 안길 — 산자락길

그림 4. 건축물 현황

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료에 있어서는 합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슬래브 구조 지붕에는 목재·점토벽돌·아스팔트 싱글 등이 사용되어 이질적 경관을 만들고 있다. 지붕 색채는 채도가 높은 푸른색 계열(하늘색·파랑색)이 가장 많다. 담장의 경우는 해안가 주택은 바닷바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마을 내 주택에는 대부분 담장이 없다. 담장의 30%가 콘크리트 블록이며 일부 주택에는 돌담이 사용되고 있는데 발을 일굴 때 나온 돌을 활용한 것이다. 돌담은 해안마을 고유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경관 요소이나 건축물의 현대화로 감소하고 있다. 신축건물의 담장은 건물 벽체와 동일한 적벽돌 및 점토벽돌로 구성되어 있다. 담장 앞 여유 공간에는 초화류나 관목 등이 식재된 화단이 조성되어있다.

역사경관인 마을 진입부의 덕양서원(德陽書院)은 조선시대 선비인 이건명(李健命)을 모신 서원으로 매년 음력 8월 19일 제사를 지낸다. 이건명이 귀양 와서 사약을 받고 죽은 후 조영되었고, 마을 명칭을 따서 '덕양서원'이라 명명되었다.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53호로 지정되었으나 관리 소홀로 비각·담장·입구 등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고 서원 입구에 해당하는 삼문이 조성되지 않아 서원 고유의 공간적 위계에서 벗어나 있다. 그 외 역사 경관 자원으로 과거 동래도 선착장과 덕양마을을 연결하던 덕흥나루터가 덕양마을 진입부에 있다.

3. 주민참여 프로그램 실행과 결과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주민들이 익숙한 분위기 속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덕양마을의 마을회관과 구룡마을의 이장택에서 2일에 걸쳐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관 추진위원회 회원들 중심으로 첫째 날에는 16명, 둘째 날에는 13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1) 마을 내 경관자원 찾기와 개선이 필요한 경관 찾기

주민참여 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2인과 주민 4인을 한 조로 총 4조를 구성해 진행했

표 3. 경관자원과 문제점에 대한 주민 의견

경관 자원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곳곳에 남아있는 돌담이 아름답음 - 사이들에서 보이는 전망과 경치 - '소스랑 섬'으로도 불리고 회귀중 나무가 있는 탄섬 - 살아있는 생명 보고로의 갯벌 - 마을 뒤 산자락길 - 덕양마을 입구의 다락논 - 마을 진입부의 우묵한 곳에서 갯벌이 예뻐 - 구룡마을 앞 선착장은 시호도까지 가까움 - 음력 8월 18일 날 제사를 지내는 덕양서원 - 치끝은 9마리의 용이 승천했다는 연못이 있었던 자리이고, 그 사이 갯벌은 체험장으로 조성해도 좋은 장소임 - 전면의 시호도가 마을 앞에 있어 편안한 느낌을 주어 좋음 - 덕양교회 주변의 소나무와 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입구의 폐가 및 방치된 창고 - 마을 공동용으로 조성했으나 방치된 바지락공장 - 입구 진입부에 모여 있는 컨테이너 박스 - 마을 곳곳에 산재한 어구 - 진입부 비포장도로는 불편하고 보기에 안 좋음 - 해안도로 주변에 쓰레기가 많아 경관이 나쁨 - 마을 높은 곳에 위치한 우사는 정비해야 함 - 시호도의 접안이 어려움 - 입구 공터의 정유탱크가 보기 좋지 않음 - 중남등 숲은 외지 소유로 시설물 설치가 어려움 - 대상지 외 지역이나 치끝에 쓰레기가 많음 - 외부 사람이 오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없음 - 입구의 비포장도로가 보기 좋지 않음 - 훼손된 덕양서원이 보기 좋지 않음

다. 먼저 과업의 개요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한 후, “마을 내 우리만 아는 사랑할 만한 비밀을 5개씩 적어 보세요?”라는 질문과 “마을 내 숨기고 싶은 요소 5개씩 적어 보세요?”라는 질문을 주고 미리 배포한 종이 카드에 주민 각자가 답을 쓰고 이를 발표하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한 경관 자원과 개선이 필요한 경관은 표 3과 같다. 다음으로 조별로 자신이 작성한 카드를 발표하면서 내용을 지도에 표시했고 조별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각 조의 대표가 각 조에서 작성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결과를 공유했다.

2) 마을의 미래상 찾기와 실천 활동 찾기

마을의 미래상 찾기는 3단계로 진행했다. 1단계에서는 “○○○○가 좋은 우리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목 아래 개인별로 미래상 3개씩을 쓰도록 하고 2단계에서는 조별 토론을 통해 미래상을 압축하도록 했다. 각자의 의견을 먼저 제시하도록 한 것은 다양한 개별 의견을 알기 위한 것이며 토론을 통해 압축하도록 하는 것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천 활동 찾기에서는 조의 구분 없이 “○○○○한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이라는 제목으로 주민이 앞서 직접 설정한 마을의 미래상을 위하여 개인이 혹은 마을주민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이는 주민이 직접 마을을 가꾸야 함을 자각하고 추후 공공의 약속인 경관협정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의도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한 미래상과 주민 실천 활동은 표 4와 같다.

3) 주민들과의 면담조사

이의 2011년 7월 11일과 7월 12일, 2일에 걸친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의 경관인식, 경제 활동 및 커뮤니티 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면담자는 위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남자 분, 여자 분 각각 다섯 분으로 연령대는 모두 50세 이상이다. 위

크숍에서의 주민들 답변과 같이, 주민들은 컨테이너 박스가 미관상 좋지 않으나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대답을 주었다. 또한 면담조사를 통해 관광객은 많지 않으나 가끔 서울, 광주를 비롯해 전국각지에서 낚시꾼들이 이곳을 찾으며, 어촌계는 각 가구의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의사결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4. 종합 및 시사점

구룡 해안마을 경관 특성과 주민참여 프로그램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구룡 해안마을은 구룡산 자락과 해안선이 형성하는 리듬감 있는 굴곡에 맞추어 입지한다. 구룡산 세 개의 골에 두 개의 마을이 입지하며, 구룡산 마루에는 마을 숲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건축물과 경작지 확대로 본래의 리듬감을 상실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는 선형의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해안도로, 구룡산과 마을을 잇는 산자락길, 마을 내부의 마을 안길 등은 높은 경관적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해안도로는 마을과 바다를 연결하는 매체이면서 동시에 차와 사람의 이동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보행로가 없어서 안전상 문제가 있고, 갯벌과 바다를 가깝게 체험하거나 조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산자락길은 다양한 활동뿐만 아니라 경관을 엮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멸실되어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

셋째는 마을 곳곳에 숨겨진 유형적·무형적 마을 공동체의 자산이다. 덕양서원과 덕홍나루터, 공동체의 기억인 명칭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에 대한 예가 되나, 관리 부족으로 덕양서원은 훼손되었고 덕홍나루터는 흔적만 남아있다.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생활 공동체로의 어촌계는 결속력과 소속감이 높기 때문에 경관형성 사업 이후 관리와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4. 경관의 미래상과 주민들의 실천이 필요한 활동

도출된 미래상	주민들의 실천이 필요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과 돌담이 아름다운 우리 마을 - 산자락길이 아름다운 우리 마을 - 해안가 벽화가 아름다운 우리 마을 - 노약자나 외지 분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잘 되어 있는 우리 마을 - 갯벌 체험장이 좋은 우리 마을 - 등산로가 있는 우리 마을 - 특산물 매장 및 먹을거리 장소가 있는 우리 마을 - 아름다운 가로등이 있는 우리 마을 - 큰애기들 가는 도로가 개설되어 관광객이 유치된 우리 마을 - 개막이 어장과 같은 체험 어장이 있는 우리 마을 - 덕양서원이 아름다운 우리 마을 - 첫인상이 좋은 마을 : 정류장과 마을 입구가 잘 조성된 우리 마을 - 갯벌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마을 - 해안가 도로가 멋진 우리 마을 - 깨끗한 우리 마을 : 쓰레기 소각장과 공동 화장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서로 더 좋은 생각하자 - 현실성 있는 안을 내자 - 전부 개인땅이므로 개발이 힘들지만 협조하자 - 꽃길보다 가로수를 만들자 - 소나무를 잘 관리해주자 - 답을 쌓을 때 돌담으로 쌓자 - 홍보를 잘하자 - 경관형성 사업에 대한 주민들과 설득과 참여를 높이자 - 지붕 색을 통일하자 - 꽃과 나무를 잘 관리하자 - 마을에 관련된 사업은 마을끼리 모여서 회의 후 의견을 모으자

주민들의 증언에 따라 경관적으로 복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마을 길 체계 재구성

구룡마을 내 길은 마을 전면에 위치한 아스팔트 포장의 해안도로, 주택들을 연결하고 경작지로 통하는 마을 안길, 해안도로 개설 후 사라지고 있는 산자락길, 갯벌에 있었던 노두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마을의 변화에 따라 새로 생기고, 사라지고를 반복하면서 전체적인 연결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각기 다른 고유의 특성을 지닌 마을길을 대상으로 사라진 길은 복원하고 끊긴 부분은 연결해, 구간별로, 전체적으로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리고 경관 특성에 따라 구간별로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해안도로인 성두구룡길의 경우는 산책로 및 조망 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안 쪽으로 별도의 포장을 해 보행로를 구분했고 공간이 부족한 경우는 해안도로 바깥쪽으로 1.5m 폭의 목재데크를 설치했다. 산자락길은 먼저 인접하나 접근이 어려웠던 국립 고층 청소년 우주센터로 향하는 길을 확보해 기존의 산자락길과 연결했다. 또한 경작지 확장으로 사라진 부분을 복원해 전체적으로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했고 주변의 휴경지나 빈터에는 시각적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야생초화류를 식재하도록 했다.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공간에는 전망과 휴식이 가능하도록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돌과 나무 등 자연소재를 활용한 의자와 안내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가시적인 전망대나 수직적인 파고라 같은 구조물 설치해 주변 경관에 비해 도드라 보이지 않게 했다.

3) 공간 체계 재구성

주민들의 외부활동의 편의성 증진과 방문객이 체계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거점 공간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조성했다. 마을 어귀의 선착장은 첫 인상을 주는 주 진입부로 ‘활동의 거점’이 되도록 했다. 현재는 마을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나 어업에 필요한 시설물과 어구들이 산재해 있어 불량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어구를 보관할 수 있는 어구 보관장을 조성하고, 포장계획을 통해 주차공간과 보행공간, 광장이 구분되도록 했다. 마을 어귀 선착장 주변으로 덕홍나루터가 있으나 현재 어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 공간을 차지하는 구조물 형태의 복원은 어려워 어구 보관장 외벽에 부조 형태의 조형물로 덕양나루터를 알리도록 했다.

또한 현재 원시 체험의 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호도와 가까운 구룡마을 앞 선착장은 ‘체험의 거점’이 되도록 했다. 추후 시호도와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주변으로 주차 공간 등을 확보했고 휴식시설 및 조형물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마을 자투리 공간 세 곳에 수목과 평상 등을 설치해 휴식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덕양서원은 서원의 공간 위계를 보여줄

그림 6. 길 체계의 재구성

그림 7. 공간 체계의 재구성

수 있도록 서원 전면과 입구를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동선을 재설정하고 주변의 녹지 공간을 정비했다.

3. 경관 가이드라인과 주민협조

마을 경관 형성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 대한 개선도 필수적이다. 사업 초기에는 일괄적인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향후 신축 및 개축이 이루어질 때 컨트롤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본 계획은 초기 사업 시행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그림 8. 기본계획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가이드라인 작성에는 주민들 및 행정과의 협의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 속에서 주민협조도 구했다.

1)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주민협조

마을 경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 주거 건축물이고, 건축물 지붕의 형태·재료·색채, 벽체의 재료 및 색채, 담장의 재료 및 색채 등에 따라서 마을의 이미지는 크게 달라진다. 이에 이러한 요소를 대상으로 전체적 통일감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구룡마을은 15번 국도를 이용하여 진입하고 ‘시호도 원시 체험의 섬’ 계획이 진행 중이

라 15번 국도에서 보이는 경관과 시호도에서 보이는 경관에 중점을 두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지붕의 경우는 형태와 재료, 색채, 벽체의 경우는 재료와 색채, 담장의 경우는 재료에 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붕의 형태는 현재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 팔작지붕과 우진각 모임지붕을 권장했으며 전체적 조화를 깨는 지붕형태는 가능한 한 금지하도록 했다. 색채에 있어서는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선호가 높게 나타난 주황색으로 선정했다. 벽면 색은 주황색으로 선정한 지붕의 색과 유사 계열인 연노랑색으로 결정했다. 담장의 경우 돌담과 점토벽돌 담장은 원재료의 색채를 그대로 유지하되 콘크리트 담장의 경우 수성페인트와 유성페

표 5.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분	제한	권장
지붕	형태	조립식 건축물, 뾰족한 지붕
	재료	아스팔트 싱글
	색채	명도와 채도가 높은 원색
벽체	재료	자기질 타일 등 유광 재료
	색채	명도와 채도가 높은 원색
담장	시멘트 벽돌 담장	가능한 한 돌담 사용, 적벽돌보다 온화한 황토계열의 점토벽돌 사용, 콘크리트 담장 시 흰색 또는 연노랑 색 도장, 담장 높이: 1.5m 권장
건축물 높이	구룡산의 스카이라인 및 주변 능선을 훼손하지 않도록 1~2층으로 유도, 1층 건물은 되도록 우진각 지붕 형태 적극 권장, 2층 건물은 되도록 슬래브 형태로 하며, 뾰족한 물매의 지붕 형태 지양	

표 6. 경관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라인
컨테이너 박스	- 가능한 한 시각적으로 차폐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 - 해안도로변 주거지 담장에 설치된 경우는 담장색과 유사한 색채로 도장
어구 보관 및 정돈하기	- 가능한 한 지정된 장소에만 어구 보관하기 - 어업 활동 시기 시 어구는 균일하게 정돈하기
돌담 지키기	- 현재 남아있는 돌담은 보호하기 - 돌담 주변 신규담장 조성 시 가능한 한 현재 돌담과 조화되도록 돌담으로 조성하기
마을 공용공간 가꾸기	- 신규 조성된 공간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 개인별 주거지 주변 텃터 관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기	- 정기적인 주민 모임(커뮤니티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공간 조성 시 토지사용에 동의하기	- 사이들들 개선 사업, 마을 산자락길 정비 사업, 전망대 조성 사업 등의 사업 시행 시 필요한 토지 사용 동의하기
화단 가꾸기	- 외부담장의 하단부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초화류 식재
휴경지 없애기	- 고흥군 재배 권장 작물을 재배하여 다락논 등의 휴경지가 없도록 하기

인트로 벽체 색채와 같은 흰색과 연노랑색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마을 안길에 면한 주택 외벽과 담장에는 어촌생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주채로 벽화를 그리도록 했다. 경사형 지붕의 박공에는 주조색인 주황색과 조화를 이루는 중명도·중채도 색상을 칠해 자연색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였다.

2) 경관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주민협조

전술했듯이 해안도로는 통과 동선이기도 하면서 공동 작업장이기도 해 해안도로를 따라 컨테이너 박스가 산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나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갈등이 있었다. 연구자는 컨테이너 박스의 경우 주택 내 마당 같은 개인 공간이나 가시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간 협소 등의 이유로 컨테이너 박스를 주택 내 마당에 두고 싶지 않아했고 이용의 편의를 이유로 들어 해안도로가에 두기를 원했다. 두 마을의 이장을 비롯한 경관 추진 위원회가 설득하고 지자체가 컨테이너 박스 이동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현재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부득이하게 존치시킬 시에는 컨테이너 외장을 건

축물 담장과 유사한 흰색 및 연노랑색으로 도장하도록 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주민들도 지적하듯 해안도로 변에 산재해 있는 어구와 어업활동과 관련된 폐기물이었다. 폐기물은 추후 사업시행 시 철거가 가능하나 어구의 경우 컨테이너 박스와 같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웠다. 연구자들은 어구 보관장 표시 지역에만 어구를 정연한 형태로 보관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준수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해 권장사항으로 남겨두었다.

돌담은 해안마을 고유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가능한 한 훼손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협조하기로 하였다. 새롭게 조성되는 공간은 향후 유지관리가 중요하므로 주민들이 자율적인 관리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협조 사항은 경관 추진 위원회를 통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마을 경관형성 사업에서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따라서 마을주민이 공공으로 이용하는 텃터, 전망대 같은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의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표 6과 같은 경관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IV. 결론

해안마을의 경관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기 보다는 펜션 같은 건축위주의 개발과 단기적 성과위주의 사업으로 고유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가와 전문가가 주도해온 마을 경관계획은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마을 경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기존 경관 질서와 가치를 존중하고 주민들의 생활미학과 생활 디자인 언어를 파악하여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인식과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관 추진 위원회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중재하는 창구가 되었다.

경관형성 계획은 먼저 시간에 따라 훼손된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정비하였다. 구룡산은 배후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대지를 복원하고 산마루 지형을 활용하여 전망공간을 조성했다. 해안과 관련해서는 돌을 사용한 계단식 스탠드와 노두길 조성으로 접근성을 높였다. 마을 길 체계는 해안도로, 마을 안길, 산자락길, 노두길 등을 대상으로 사라진 길은 복원하고, 끊긴 부분은 잇고 연결하면서 경관 주제에 맞도록 재구성하였다.

공간체계는 주민들의 편의성 증진과 방문객의 체계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거점 공간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조성하였다. 마을의 첫 인상을 주는 마을 입구에는 마당을 조성하여 '활동의 거점'으로 삼고, 현재 원시 체험의 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호도 선착장은 '체험의 거점'으로 활용했다. 마을 곳곳에는 주민을 위한 쉼터 및 전망대를 조성하여 '휴식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덕양서원은 서원의 공간 위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서원 전면의 동선을 재설정하고 주변의 녹지공간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축물과 컨테이너 박스, 어구 같은 사적 영역에서도 경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프로그램과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경관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밀착한 해안마을 경관형성 계획을 수립하려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해안마을 경관 형성 사업의 한계점과 과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는 주민들의 인식과 실천 사이의 간극이다. 주민들은 마을경관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또한 경관 추진 위원회와 함께 경관협정을 추진해야 했으나 이를 이루지 못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보다 풍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나, 주어진 과업 기간인 6개월로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주민들의 의욕을 끌어내고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같은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둘째는 마을 경관형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이다. 지방 정부와 주민들은 마을 경관형성 사업을 통해 신규 건축이나 도로 확장 같은 개발 사업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고, 실제로 이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다. 이는 계획 초기에 사업 특성을 이해시키지 못해 나타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마을 고유 경관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마을 경관형성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셋째는 해안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다. 해안마을 경관형성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해안마을 자체를 관광자원화 하는데 치우친 경향이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해안마을 경관은 정주, 경제, 문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이므로 해안마을 경관형성계획은 관광자원화와 정주환경 조성, 문화 활동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경관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계획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일회적인 사업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주 1. 편집자 주 본 계획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2010년도 해안마을 경관형성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시행은 고흥군, 과업책임은 (주)선진엔지니어링이다. 공동저자인 김연금(조경작업소 울)은 실무책임을 맡았고, 최정민(순천대학교 조경학과)은 총괄계획가(MP)로 참여하였다.
- 주 2.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내 구룡마을과 덕양마을이나 시범사업명은 '구룡 해안마을 경관형성기본계획'이었기에 본 연구에서도 두 마을을 구별하지 않고 '구룡 해안마을 경관형성기본계획'으로 칭했다.
- 주 3. 강효원 등(2011)은 해안마을을 내륙화산형과 해변경계형 그리고 이 둘이 혼합된 복합형으로 구분한다. 내륙화산형은 바다에서 내륙 쪽으로 확산되는 형태의 촌락을 말하며 해변경계형은 해안선을 따라 촌락이 길게 열 지어 형성되어 있는 형태를 말한다.

인용문헌

1. 강효은, 조연경, 우산구(2011) 도시어촌 생활경 도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11): 277-288.
2. 김진환, 윤상현(2011) 어촌마을의 경관형성을 위한 실태고찰.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학술발표자료. pp. 193-196.
3. 정치영(2009) 경남의 마을. 경남문화연구소보 30: 104.
4. Chambers, R.(2002) Participatory Workshops: A Sourcebook of 21 Sets of Ideas & Activities. London: ERCHSCAN.
5. Schneekloth, L. H. and R. G. Shibley(2000) Implacing architecture into the practice of placemaking. Journal of Architecture Education 53(3): 130-140.
6. Wates, N.(2006) The Community Planning Handbook. London: ERCHSCAN.
7. <http://www.goheung.go.kr>

원 고 접 수 일: 2012년 8월 13일
 심 사 일: 2012년 9월 19일(1차)
 2012년 10월 29일(2차)
 게 재 확 정 일: 2012년 12월 4일
 3 인 익 명 심 사 필